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GYEONGGI MARINE FESTIVAL 2011
Korea International | World Match Racing Tour
Boat Show | Korea Match Cup

경기국제보트쇼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

기간 | 2011. **6. 8**(수) ▶ **6. 12**(일)

장소 |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 안산시 탄도항

www.koreaboatshow.org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안산시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KINTEX
킨텍스

문화체육관광부

mke
신식경제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민선 5기 장례비용편 해소장·단기정책

부천시민 76.4% ‘찬성’ ... 화장비용 지원 50~70% ‘적정’

3천35명 ARS 설문조사 ... 인천화장장 오전 이용 ‘홍보 필요’
화장장 선호도는 인천화장장 63.1%로 가장 높아

부천시민 대다수가 민선 5기 출범이후 장례비용 편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인근 화장장 이용시 화장장 이용료의 일부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인근 지자체와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는 이른바 ‘화장장 장·단기 정책’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화장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할 경우 50~70%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가 5월17일부터 22일까지 시민 3천35명(응답 연령층 50대 37.5%·60대이상 33.2%·40대 19.0%·30대 5.9%·20대 4.4%)을 대상으로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4%(1천877명)가 ‘부천시민 장례비용 편 해소를 위한 부천시의 장·단기적 정책 추진’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또 ‘부천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화장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할 경우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42.7%(2천553명)가 ‘50% 지원이 적절하다’고 답했고, 27.1%(692명)가 ‘70% 지원이 적절하다’고 답해 50~70% 수준에서 화장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높았으며, ‘30% 지원’은 15.7%(401명), ‘100% 지원’은 14.5%(369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5월1일부터 부천시민도 인천화장장 오전 이용이 가능한 사항을 알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50.4%가 ‘알고 있다’고 답했고, ‘모른다’는 응답도 49.6%에 달해 조사시점을 감안하더라도 대시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고자 사망시 수도권 화장장을 이용한다면 어느 화장장을 이용하겠는가’라는 물음에는 인천 화장장(63.1%), 벽제화장장(18.1%), 수원화장장(5.3%), 성남화장장(1.8%), 기타지역(11.7%) 순으로 나타나, 인천화장장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월1일부터 25일까지 부천시에서 사망한 170명 가운데 137명이 화장(매장 33명)을 했고, 인천화장장 이용자는 95명(69.3%), 수도권화장장 39명(28.5%), 기타 3명(2.2%)으로 집계됐으며, 인천화장장을 오전에 이용한 부천시민은 74명으로 인천화장장 이용자의 78%가 선호하는 오전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5월부터 부천시민도 인천화장장의 오전 시간대 이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부천시민들의 장례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인천화장장의 오전 이용 가능 사실에 대해 부천시민 49.6%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대시민 홍보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에 따르면 5월1일부터 부천, 시흥, 김포, 안산시민들에게 인천화장장 전용 화장로 3기를 배정해 오전(8시30분, 11시)과 오후시간대(1시30분, 오후 4시) 등 하루 4차례 이용토록한 결과, 총 189명이 이용했고 이 가운데 부천시민 95명(51.1%), 시흥시 33명(17.7%), 안산시 31명(16.7%), 김포시 27명(14.5%) 순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연간 화장수요 2천400여명 달해
화장장 이용료 일부 지원시 소요 예산은...

부천시가 시민에게 화장장 이용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인천가족공원(화장장)은 물론 수도권 화장장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용료가 5만~10만원인데 비해, 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10~20배가 비싼 70만원(벽제 화장장) 또는 100만원(인천·수원·성남화장장)의 이용료를 내야 하는 관계로 경제적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자체 화장장이 없는데 따라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화장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기 위해 화장장 사용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이번 ARS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료의 50~70%선에서 지원키로 하는 등 시민들의 장례비용 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부천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기준 6만3천800여명(남자 2만5천300여명, 여자 3만8천500여명)으로, 연간 화장수요는 2천400여명(화장률 75.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부천시민의 화장률을 감안해 연간 2천500여명에 대해 화장비용(화장장려금) 50%(50만원)를 지원할 경우 연간 12억5천여만원의 예산이, 70%(70만원)를 지원할 경우 연간 17억5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부천시가 화장장을 신설하는 비용 277억 원과 연간 운영비용 12억4천여만원, 연간수익 5

억2천여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측면에서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화장장려금(또는 지원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안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7개 시·군 등 전국 33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장례 불편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시는 이같은 인천화장장 오전시간대 이용 및 화장장 이용료 일부 지원(화장장려금)은 늘어나는 화장 수요를 감안할 때 한시적인 대책인 관계로, 화장장이 없는 부천시민들의 장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경기도 광역별 광역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 5기 출범 이후 시장·군수 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경기도지사에게 화장 수요의 광역적 해결방법 강구를 촉구하고 있으며, 부천시민이 안정적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도 함께 화장장 건립계획을 협의해 오고 있다. 시는 이런 연장선상에서 내년부터 전국 시·군이 준(準)광역시로 준하는 개념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태이다.

화장장 문제도 이런 통합문제와 연계해 대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준(準)광역시 개념의 화장장 조성,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광역 차원의 화장 수급을 감안한 화장장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 부천시의 기본 방침이라고 시 주민생활지원과 요양보장팀(☎032-625-2863)은 밝혔다.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6개 분과위원회 임원진 선출

부천시 참여예산시민위원회(위원장 신철영)는 시민위원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 등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일 북사골문화센터 연수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은 ‘주민참여예산의 기본 이해와 시민위원회의 역할’이란 주제 특강에서 외부 사례 습득 및 시민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6개 분과위원회를 개최, 분과위원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원칙인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참여예산시민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분야별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동(洞) 주민회의에서 제안한 사업을 심의하

고 시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참여예산시민위원회 관계자는 “시민들도 의견을 건의할 수 있도록 시 재정홈페이지(budget.bucheon.go.kr) 내 ‘시민참여토론폰방’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 참여예산시민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 별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자치행정 분과위= 위원장 김기현, 부위원장 박종화, 간사 장경화 △경제문화 분과위= 위원장 김병선, 부위원장 이종욱, 간사 오혜숙 △사회복지 분과위= 위원장 김재철, 부위원장 최유호, 간사 최현주 △도시개발 분과위= 위원장 이종일, 부위원장 장주덕, 간사 박운규 △환경청소 분과위= 위원장 방순희, 부위원장 홍준선, 간사 김정은 △교통도로 분과위= 위원장 이상열, 부위원장 김정수, 간사 이선화.

부천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3.3% 올라

6만3천348필지 결정·공사... 이의신청 받아
부천 북부역사거리 m²당 1천80만원 ‘초고가’

부천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시에 등록된 토지(임야) 전체 중 표준지 1천427필지를 제외한 6만3천348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부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3.3%가 올랐으며, 이 가운데 부천 북부역 사거리에 위치한 상업지역의 근생 건물인 원미구 심곡동 177-13번지가 m²당 1천80만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녹지지역내 인야로 사용되고 있는 소사구 송내동 산38-6번지가 m²당 2만300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9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사유지 5만2천292필지, 국·공유지 1만1천56필지이며, 3개 구별로는 원미구 2만5천293필지, 소사구 1만7천531필지, 오정구 2만524필지이다.

용도지역별 지가 수준을 보면 ▲주거지역에서 최고 지가는 원미구 상동 526의 6번지로 m²당 267만원이고, 최저 지가는 원미구 역곡동 178의 2번지로 m²당 31만3천원이다.

▲상업지역에서 최고 지가는 원미구 심곡동 177의 13번지(부천 북부역사거리)로 m²당 1천80만원이고, 최저 지가는 원미구 심곡동 489의

84번지로 m²당 127만원이다.

▲공업지역에서 최고 지가는 소사구 송내동 389의 4번지로 m²당 200만원이고, 최저 지가는 오정구 삼정동 24의 24번지로 m²당 75만3천원이다.

▲녹지지역에서 최고 지가는 소사구 과안동 21의 1번지로 m²당 175만원이고, 최저 지가는 소사구 송내동 산38의 6번지로 m²당 2만300원이다. 또한 부천시의 6만3천348필지의 공시지가(m²) 총액은 44조4천575억4천9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만3천511필지에 비해 163필지가 줄어든 반면,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지난해 43조19억8천200만원 보다 3.3%(1조4천555억6천700만원)가 증가한 것이다.

원미구의 경우, 2만5천293필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24조8천71억4천6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필지 수는 10필지가 줄었으나 공시지사 총액은 부천시 전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과 같은 3.3%(8천89억3천400만원)가 올랐다.

소사구의 경우는 1만7천531필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9조8천452억7천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필지 수가 37필지가 늘어났고, 전체 공시지가 상승률로 3.7%(3천483억9천700

만원)가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오정구의 경우는 2만524필지의 전체 공시지가 총액은 9조8천51억2천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필지 수가 210필지 줄었으나 공시지가 총액은 3.1%(2천982억3천600만원)이 올랐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6월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천시는 이의 신청기간 종료 후 7월28일까지 적정 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공고 등의 제반 절차 이행 후 최종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토지관련 국제 및 재산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관심을 갖고 열람할 필요가 있다.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결정통지문 미수령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토지정보팀(☎032-625-3461) 또는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원미구 ☎032-625-5176, 소사구 ☎032-625-6176, 오정구 ☎032-625-7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협약 체결
부천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부천시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들이 아토피 질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안심학교 유병을 실태조사, 과학적인 프로그램, 지식 보급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우선 소아 청소년기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적정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부인초·부천남초·까지울초 등 3개 학교를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시범 운영한다.

소아보건소 건강증진팀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아토피 질환 예방과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32)625-4375.

theBucheon

더부천신문사

우 420-101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88-48번지 2층
홈페이지 www.thebucheon.com
광고신청·문의 ☎032-329-2313 FAX 032-329-2314

전화안내 ☎032-329-2313
등록번호 경기 다 01096
E-mail: storm@thebucheon.com

발행인 許玉粉	편집인 姜泳百	인쇄인 이승철	편집국장 姜泳百
무가 발행 부천시 전지역 배포 2008년 9월23일 경기 다 01096		〈격주간 발행〉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부천시민과 정직한 소통-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

www.bucheonin.com / www.bucheon.me
‘인터넷 더부천’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깔끔하고 절제된 고품격 온라인 뉴스서비스
더 새롭게 더 정확하고 더 세련되고
더 빠르고 더 강해졌습니다!

The 성장하고 The 사랑받는 The 부천이 되겠습니다.

부천의 참언론- 더부천 www.thebucheon.com

기사 제보·광고문의 : ☎(032)329-2313 / FAX (032)329-2314
e-메일 : storm@thebucheon.com / 010web@naver.com



◆부천시 MBT시설 처리방향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 예상

“시공사 손해배상·공무원 구상권 청구 등 신중 검토”

민선 4기에서 추진돼 ‘성능 보증량(하루 90t 쓰레기 처리, 하루 55t RDF 생산)’을 충족시키지 못해 1년 남짓 공공이 지연되고 있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 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의 처리문제를 떠안게 된 민선 5기 부천시가 적지 않은 고민에 빠진 가운데, MBT 처리문제는 일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시공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지난 5월24일 오전 열린 부천시의회 제1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박노설 시의원이 질의한 MBT시설 문제와 관련한 향후 처리 및 대책 등에 관한 답변을 통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계약 해지시 시공사의 소송 제기가 예상되고, 계약해지로 인한 MBT시설 철거시 부천시와 RDF(고형연료) 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130억원의 시설비를 투입해 RDF 전용보일러를 건설한 (주대원제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예상되며, 국·도비 60억원의 환수와 시공사에 이

미 지급한 76억원의 공사비 회수에 대한 어려움 및 향후 국·도비 지원이 필요한 소각장 대체 건설, 음식물쓰레기 바이오매스화 사업 등에 있어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고민의 일단을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2월21일~3월18일까지 시운전 결과 생활쓰레기 하루 75톤 처리, RDF 하루 34톤 생산 결과를 바탕으로 MBT시설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된다는 전제 하에 ▲주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사에게 재시공을 맡기는 방안 ▲MBT 시운전 결과와 여름철 반입 조건 등을 감안한 정산 설계로 계약금액을 감액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중에서 시의 예산남비 예방 및 손해 배상과 향후 안정적 운영에 따른 계약, 운영, 시공 등 면밀히 조사·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를 위해 “MBT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관련부서 및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MBT건설에서부터 준공 후 운영까지 면밀히 검토해 피해 발생이 최소화 하겠

다”고 했다.

시는 특히 공무원 구상권 및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MBT사업의 추진 및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그러한 문제가 공직자의 고의 및 중과실에 기인했음이 입증된다면, 시공사 등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서도 만회되지 않는 재정 손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의 허용 여부에 따라 구상권 등의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MBT시설 미준공으로 인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20일 현재까지 주대우건설에서 부천시에 지불해야 할 지체 상금은 약 50억6천200만원이고, MBT 준공 지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반입 처리량은 약 1만5천400톤으로 금액으로는 약 5억6천만원으로 추산된다”며 “쓰레기처리에 있어 장기간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난 1월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매립지수명 종료시까지 반입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한편, MBT시설은 설계·시공 일

괄입찰(툼키·Tum-Key) 방식으로 기본과 실시설계도는 대우건설, 태영건설, 한솔이엔지니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됐고, 성형기는 2단 변속기어 구동방식으로 길이는 사양 차이이며 설계서와 시공 상태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운전이 종료된 지난 3월22일 성형기(1대)가 부산으로 옮겨져 수리된 사실을 확인한 후, 시 주관으로 인천에 소재한 대형 선반업체에 중심축 편심 여부를 측정했으나 공인기관에 다시 의뢰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지난 5월3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재측정한 결과 편심작용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대우건설에서 성형기 3대 모두를 교체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공사인 주대우건설 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며, 감리사인 동부엔지니어링㈜ 외 2개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부천의 참언론 - 더부천
www.thebucheon.com

◆소사역 남측 출입구 추가 설치문제

“KT가 키 쥐었다”... “통신구 이설 불가” 입장

부천시 “KT 검토결과 나오면 국토부에 건의”

부천시는 소사~원시간 복선전철 사업에 따른 소사역 남측 출입구 추가 설치문제와 관련, “KT 동부전지점에서 “통신구 이설 불가하다”는 입장인 만큼, 6월까지까지 KT에서 통신구 이설 및 사육이 편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입구 추가 설치를 위한 방법 및 사업비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지켜본 뒤 국토해양부에 추가 설치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24일 오전 부천시의회 제1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소사역 남측 출입구 설치문제와 관련한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당초 국토해양부 기

본설계(정부 고시안, 2007년 12월)에는 외부출입구 신설없이 기존 경인전철 소사역 출입구 3개소(북측 1개, 남측 2개)를 이용해 환승토록 돼 있었으나, 사업시행자인 ㈜이레일에서 제안 설계(2008년 1~9월) 및 실시설계(2009년 10월)를 통해 기존 출입구 이용 및 신규 출입구 2개소를 북측(원미구 방향)에 설치하고, 남측 방향으로는 기존에 지상 1층 출입구 확장 계획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소사역 남측 출입구 설치를 위해 2007년부터 올해 3월 사업 승인시까지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사업시행자인 ㈜이레일에 건의를 했다.

하지만 ㈜이레일 측은 소사역 남측 방향(소사구 방향)의 KT동부전지점에서 관리하는 통신구(수직구·폭 8m, 깊이 30m이상, 서울방향, 시흥방향 통신구) 저측과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어려움으로 ‘통신구 이설 불가’를 통보받아 출입구 설치를 위한 보도 폭 5~7m 이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남측 출입구 설치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이곳의 보도 폭은 좌 1.5m, 우 2.5m 정도에 불과하다.

또 소사역의 경우, 당초 고시안처럼 정거장을 중앙에 배치할 경우 KT 동부전지점 사육이 편입돼 KT에서 안전 및 기술상 문제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시민의 편리성 및 시민 정서 등을 고려해 출입구 추가 설치를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월12일에는 KT, ㈜이레일, 설계사 유신 등과 의에서 KT 통신구 이설 및 사육 편입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입구 추가 설치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오는 6월30일까지 KT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소사역 남측 출입구 추가 설치 의지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사~안산간 복선전철사업은 지난 3월30일 착공해 오는 2016년 2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시의회 ‘자살 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통과

한선재 시의원 대표발의... “자살 예방대책 추진” 자살 예방위원회와 센터 설치 운영 및 교육실시

부천시의회의(의장 김관수)는 지난 5월25일 제17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같은달 19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서강진)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 예방위원회와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선재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부천시 자살예방지원 조례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대해 통과명칭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바꾸고, 자살예방위원회 위원자격을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수정하고 부천시의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정신과 전문의를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선재 시의원(민주당·소사본1·2·3동)은 “2년여 전 주변 사람들의 자살을 접한 이후 우리 사회의 자살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그동안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라며 “자살문제에 대해 지역사회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1년간 자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하루평균 42.2명꼴인 1만5천413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 중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31

명(부천시는 27.7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처럼 높은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예방대책이 없는 만큼, 자살 예방 조례 제정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천시의회가 이날 통과시킨 ‘부

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 예방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와 ‘자살 예방위원회’ 및 ‘자살 예방센터’를 설치, 운영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살 예방위원회는 임기 2년(연임 가능)의 15명 이내로 구성돼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원미보건소장이 맡도록 했으며, 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장·인천지킴이 부천시청장·부천 3개 경찰서장·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거나 부천

시의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정신과 전문의·노인복지 및 청소년복지 관련 전문가·관계 공무원·그밖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또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9월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콜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전국 6억원이상 주택 물량

최근 5년새 아파트 줄고·단독주택 늘고 공시총액 1천919조3천372억여원 5년 새 350조원 가까이 늘어나

최근 5년간 전국의 6억원 이상(이하 공시가 기준) 고가주택들 가운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물량은 줄어든 반면, 단독주택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차명진 국회의원(부천 소사)이 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국의 6억원 이상 주택 물량 중 공동주택은 25만3

천959호, 단독주택은 3만1천990호였다.

공동주택 27만8천120호, 단독주택 2만7천239호가 공급됐던 2007년과 비교하면, 단독주택은 17.3%(4천721호) 늘었고, 공동주택은 8.7%(2만4천161호) 줄었다. 연도 별로도 6억원 이상 주택 물량이 갑자기 줄었던 2009년을 제외하면, ‘공동주택 감소, 단독주택

증가’ 현상은 꾸준히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택 감소 현상은 9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서 더욱 뚜렷했다. 2007년 10만5천715호였던 물량이 2011년 8만362호로, 감소율이 24%(2만5353호)에 달했다.

한편, 전체 주택 공시물량 중 6억원 이상 고가 주택 비율도 2007년 2.3%에서 2011년 1.97%로 점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2011년 전국 주택의 공시총액은 1천919조3천372억8천900만원으로, 5년 전에 비해 350조원 가량 늘었다.

“소사역에 지하철 차고지 설치계획 없다”

소사 ~ 안산 복선전철... ‘우려는 기우’ 소사역 주변 토지보상은 하반기 실시

부천시는 소사역~안산 원시역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소사역 부근의 지하철 차고지 설치여부와 관련 “전철이 박차하는 지하철 차고지는 시흥 차량기지를 이용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소사역의 지하철 차고지는 없다”고 밝혀 기우(杞憂)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5월24일 오전 열린 부천시의회 제1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소사역(시점부)과 원시역(종점부)에는 차고지가 아닌 차량이 원활히 운행할 수 있는 회차 선로가 계획돼 있으며, 회차로 설

치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대비한 시설로 지하철 7호선 상동역, 인천 경계지역에도 설치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 소사역 주변 토지보상과 관련, “소사역은 외부 출입구 및 환기구, 엘리베이터 등 구조물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돼 토지보상이 불가피하고, 편입된 용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중 감정평가를 실시해 하반기에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의무 휴일제 촉구’

부천시의회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1일 영업시간 12시간 이하 등 요구

부천시의회의(의장 김관수)는 지난 5월25일 제17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나득수 의원 등 20명이 제안해 기획재정부위원회(위원장 강동구)에 상정, 심사를 거쳐 상정된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 및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 3회 이상 휴일할 것을 요구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품목 제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영세한 중소기업 상인들을 지키고 날로 심각해지는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의 모든 기조의회가 강력히 대응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 내

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을 제안한 나득수 의원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한 시장 잠식으로 우리의 전통시장에 붕괴된 지 오래인데, 설상가상으로 주먹가 골목의 구멍가게까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1997년 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후 대규모 소매점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형마트는 1999년 116개이던 점포 수가 지난해 7월 419개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연간 매출액도 7조6천억원에서 무려 8배가 늘어난 32조여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1999년 46조2천억에 달하던 국내 전통시장은 속속 문을 닫아 2008년 기준 전 국 20만7천개의 전통시장 연간 총 매출액 25조9천억원으로 절반 가까

이 줄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123조 2항과 3항에는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와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의 ‘착취이식’ 영업 행태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규제받지 않고 있다”며 “고지적하고 ‘수록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유통체제를 바로잡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을 지키고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 및 의무휴일제 촉구’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부천시청 직장 운동부, 구조조정 예고

학교운동부 연계·성적 등 고려 “신설·폐지 검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 여부도 적극 검토” 밝혀

부천시청 직장운동부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는 지난 5월24일 오전 부천시의회 제1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한선재 의원(민주당)이 질의한 시청 직장운동부 운영과 관련, “학교 운동부와 연계성이 없거나 경기도 체전 출전 가능 종목 등을 신중하게 분석해 우수한 선수의 총원이 가능한 종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향후 직장운동부의 신설 또는 폐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는 또 관내 초·중·고교 운동종목 중 국위 선양 및 시의 위상을 빛낸 투자가치가 있고 잠재성이 있는 시민 공감대가 높은 종목의 창단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교육지원청, 학교, 체육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창단 여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는 특히 시청 직장운동부를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수들의 소속감 및 신분상의 차이 등으로 선수 수급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직장운동부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공단 소속이 됐을 경우 시설 사용 측면과 입상 실적에 따라 은퇴 후 생활체육 강사로의 활용 등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선수들이 마음 놓고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전환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직장운동부는 올해 현재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에 125개 팀 1천203명이 소속돼 있고, 부천시청 직장운동부는 검도, 육상, 수영, 테니스, 탁구, 레슬링 등 6개팀 48명의 선수가 소속돼 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한국IBM

대형 교통사고 방지 ‘똑똑한 교통시스템’ 구축

CCTV에 스마트영상감시시스템 접목 정확한 교통상황 제공 사전 경보장치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치안서비스에도 활용 추가 장비 증설없어 예산 절약·관리 효율성 증대효과 기대

교통흐름을 90% 이상 정확하게 감지해 지체와 시민들에게 교통흐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도로상의 돌발 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해 사고 가능성을 대폭 줄여주는 ‘똑똑한 교통정보시스템’이 부천시에도 도입됐다.

한 국 IBM(대표 이휘성·www.ibm.com/kr)은 “기존 폐쇄회로(CCTV)에 스마트영상감시시스템을 접목시켜 CCTV가 보내오는 영상에서 화회전, 우회전, 직진, 유턴, 중앙선 침범 차량 수와 최소 1분 단위의 평균 속도 등 다양한 교통 데이터를 추출해 부천시시설관리단단이 위탁 운영하는 부천시교통정보센터(www.bccits.go.kr)에서 통합 분석해 정확한 교통정보를 부천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되는 도시교통정보시스

템(UTIS)의 공통적 문제점인 공차 정지에 따른 ‘프로브(Probe) 차량’(순찰차, 택시, 일반차량 등에서 위치 정보 및 속도 정보를 발송하는 장치)를 설치한 차량의 교통정보 정확도 저하 상황 해소 및 개선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교통시스템은 정확도가 90% 이상 개선된 정확한 통합교통정보를 제공받아 일상생활에 활용되며, 사고나 고장 차량 발생, 화물 낙하 등 도로상의 돌발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담당자에게 경보 신호(Alarm)를 보냄으로써 신속한 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범죄 차량, 뺑소니, 도난 차량 수배 등 다양한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해 시청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시스템은 부가장비 설치 없이 기존의 CCTV를 그대로 활용

할 수 있어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은 증가시키는 반면,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김영의 이사장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지원하고 시민에게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지능형교통시스템(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의 운영 목적”이라며 “IBM의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은 기존 CCTV 영상을 활용해 다양한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구현하고 중앙관제(Central Processing)를 실현함으로써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IBM김원종 글로벌 테크놀로지 서비스(GTS) 대표는 “부천시의 지능형 상황인지 교통 영상분석시스템이 추출하는 데이터는 교통정보 뿐 아니라 치안 및 복지 서비스까지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민과 정직한 소통
인터뷰 더부천
www.thebucheon.com

경기도, 전국 최초로 풀(Pool) 정원제 추진

하반기 중 주요 현안 보유 실·국 위주 정원 30명 범위내 풀정원 배치할 예정

경기도는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경우 대기중인 인력 중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인력을 뽑아 쓸 수 있는 풀(Pool) 정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구상한 풀(Pool) 정원제는 총 인력의 일정 비율을 풀 정원 TO(table of organization)로 정하고, 주요 현안 발생시 실·국장 판단 하에 풀 정원 TO만큼 인력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국장 판단하에 과감히 정원을 재배치할 수 있고, 향후 긴급한 현안발생시 도(道)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정원의 재배치가 가능해 증원 수요는 억제하면서 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일반직 정원의 1%정도(30명 내외) 범위내에서 5급 이하 공무원 1~3명 정도를 풀 정원 묶음으로 실·국별 주무과에 배치할 예정이다. 도는 성과가 좋을 경우 최대 5%(150명)범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도내 모든 실·국이 아니라, 주요 현안을 보유하고 있는 실·국 위주로 풀 정원을 배치할 방침이다. 이같은 풀 정원제 도입은 폭증하는 행정 수요와 정원을 쉽게 늘릴 수 없는 현실 사이에서 나온 교육책이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3천 707명으로 전국 평균 1천577명의 3배가 넘는 경기도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안 문제 처리를 위해 정원을 늘려야 하지만, 총액 인건비로 공무원 수를 제한하는 행안부 방침 때문

에 정원 증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족한 정원 여건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풀 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박수영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금까지는 새로운 행정 수요가 있을 때마다 기관별로 정원 증원을 요구해 왔으나 풀 정원제가 시행되면 실·국장 판단하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 원활한 인력 배치와 함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풀 정원제 도입이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풀 정원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부천의 참언론 - 더부천
www.thebucheon.com

김문수 지사, ‘대통합 국민연대 발기인 대회’ 참석

보수성향단체인 ‘대통합 국민연대’가 2일 오후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여권 내 대권 후보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 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보수 성향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브레인 집단’인 이 단체에는 김선규·정규석 공동준비위원장 등 3천 33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대통합 국민연대’의 전신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등이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외곽조직이던 ‘선진 국민연대’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표만 많이 얻으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표를 얻으면서 대한민국을 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합국민연대 발기인 대회’에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한 나라로 만들 것인지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우리는 지난 63년간 위대한 역사를 썼지만, 지금은 한나라당 자체도 상당히 혼미하다”고 지적하고 “대통합 국민연대 동지 여러분이 위대한 통일 강대국을 만드는 날이 올 때까지, 친박도 친이도 없이 한 길로 힘차게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합 국민연대’는 이날 발대식에서 ‘통일된 국가, 건강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면서 현재의 사회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오는 8~12일 경기국제보트쇼, 안산 탄도항 22종 해상·육상 체험프로그램 선보여

녹음이 짙어가는 6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안산시 탄도항과 화성시 전곡항 일대에서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2011 경기국제보트쇼’가 열린다.

‘경기국제보트쇼’는 서해안을 ‘동북아 해양 레저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행사로, 해양 레저산업 관련 국내외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는 컨퍼런스와 350여개의 국내외 기업들이 참가해 해양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경기국제보트쇼’ 기간 중 안산시 탄도항에서는 해상과 육상에서 총 22종의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해상 체험으로는 크루즈 요트, 누워서 타는 보트인 카타마

란, 황포돛배 등 다양한 ‘승선 체험’과 ‘갯벌 바지락 잡이’ 등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육상 체험으로는 ‘승마체험’, ‘어촌 민속놀이 체험’, ‘행글라이더’, ‘유아 물놀이 체험’, 물고기를 잡는 ‘스피드 바다체험’ 등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부하다.

특히 대형 텐트 내부에 구성된 전시 프로그램은 체험과 교육이 어우러져 우리나라 배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와 샌드체험전, 해양 게임존, 해양 오감 콘텐츠 등이 기다리고 있다.

상시 운영되는 부대 행사로는 조

개, 물고기 목걸이 만들기, 바람개비, 부채 만들기, 가족 티셔츠 만들기, 점토를 이용한 클레이 체험 등 아가자 기한 체험들이 아이들의 오감을 만족시켜주기에 충분하다.

그밖에도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게 10개국 36종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세계 음식과 10개국 24개 외국인 팀의 세계 다문화 공연 등 글로벌 문화 체험도 즐길 수 있다.

경기국제보트쇼 기간 중 모든 체험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체험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국제보트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국제보트쇼 홈페이지
www.koreaboatshow.org

부분임대형 주택 제도 개선 첫 결실

85㎡초과 공동주택 내
30㎡이하 임대 가능

분양주택 내 부분임대형 주택제도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도가 지난 4월13일 발표한 뉴타운 제도개선안 중 하나인 ‘부분임대형 주택제도’를 반영한 업무처리 지침을 5월 31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일부 공간을 30㎡ 이하의 규모로 분할해 사용·임대할 수 있는 구조의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을 산정할 때 1세대로 적용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도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10개 지구의 85㎡이상 주택 2만2천117호(전체 분양주택의 16%)가 대형 평형으로 부분임대형 주택 도입이 가능한 전망이다.

도는 부분임대형 주택이 1~2인 가구 등 서민계층 주거 안정, 생계형 임대소득자 생활 안정, 세입자 재정착률 제고에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도(道)가 제안한 뉴타운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현재 용역중인 도축법 및 도정법 통합 법제 개편시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도는 의원 입법을 통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기관, 하반기부터 인적교류 추진

25개 공공기관과 인적교류 협약 맺어 대상은 팀장급 포함 기관별 3% 내외

경기도내 25개 공공기관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원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5월3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25개 공공기관장이 함께 모여 직원 인사교류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 공공기관들은 6월부터 기관별 교류대상 직원 선정과 대상자 추천, 기관간 협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인사교류를 시행할 예정이며, 하반기 성과분석 후 내년부터 인사교류를 정례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교류는 기본적으로 기관간 1대1 상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3개 이상 복수기관간 교차교류도 가능하다. 대상 직원은 팀장급을 포함한 기관별 3% 내외에서 출·퇴근 거리, 전공분야, 업무성격 등을 감안해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선정할 방침이며, 개인의 역량 함양과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청에 의한 희망자 위주로 시행할 계획이다.

보수지급 문제는 기관간 사전 조

율을 거쳐 방침을 최종 확정하고 희망보직 부여,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급 지급 등 인사상 우대·교류수당 지급 등 재정상 우대·기타 기관에 대한 우대 방안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공기관간 직원 인사교

류가 직원 방출이 아닌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시행에 따른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이번 인사교류가 도정에 관한 넓은 시야를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 공공기관간 소통 강화와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맞춤형 경기부동산 포털’ 도민 호응 높아

경기도의 모든 부동산 종합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맞춤형 경기부동산 포털(gis.gg.go.kr)’이 도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도에 따르면 2월1일 개설 후 ‘맞춤형 경기 부동산 포털’의 접속 건수는 매월 평균 700만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서비스 개시 4개월만에 인기 사이트로 자리잡았다.

가장 많이 보는 정보는 ‘맞춤형 지도’ 서비스로 연속 지적도, 도로명 주소지도, 개별공시지가 지

도, 항공사진 등 18종의 행정 내부 지도 제공 콘텐츠였으며, 토지(임야)대장, 가격정보 등 30여개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뒤를 이었다.

한편 도는 시군구 공무원들의 현장 업무지원을 위해 6월3일 ‘공무원용 경기부동산 포털’을 오픈하는 등 현장 중심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 이용자를 위해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용 ‘경기부동산’ 앱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3.36% 상승

분당 서현동 ㎡당 1천350만원 ‘최고가’

경기도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408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경기도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내역을 보면 지난해 대비 평균 3.36%가 상승했는데, 이는 보급자리 주택지구 및 제3경인고속도로 준공, 복선전철사업 등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상승률을 보면 하남(7.94%), 구리(6.68%), 시흥(5.33%), 남양주(4.98) 순으로 높았고, 과천(1.23%), 안양(1.88%), 안성(2.46%), 의정부(2.49%)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 2.57%에 비해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필지별로는 전제조사 개별필지의 71.2%인 290만7천 필지의 지가가 상승했고, 15.9%인 65만1천 필지는 지가변동이 없었으며, 하락 필지는 9.7%인 39만 필지였고, 3.2%인 13만1천705 필지는 올해 신규로 조사

됐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8-6번지로 ㎡당 1천35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싼 땅은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산213-1 번지로 ㎡당 376원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에 발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군·구청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재조사 및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8일까지 확정,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天子峰 산기슭에서 자라는 장수樂 도라지 농원 방문을 환영하며 희망 하시는 분은 안내해드립니다.

밀폐된 공간, 에어컨 바람 “목에는 도라지다”

장수樂 도라지

왜 장수樂 도라지인가?

- ▶ 예로부터 목에는 따라올 것이 없다고 알려진 것이 도라지다.
- ▶ 도라지가 좋은 이유는 차가운 바람으로 얼어붙은 한겨울에도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지키는 도라지의 힘 때문이다.
- ▶ 오래 묵은 도라지는 산삼보다 나으며 사포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전국 판매점 모집 문의

|서울본사| 주문안내 : 02)8484-114

|경남사무소| 주문안내 : 055)5522-114

Dolm 장수약도라지 ▼



목이 불편하세요? 그럼 도라지진액을 권해드립니다.

- ✓ 목을 많이 쓰시는 분(교사, 종교인, 방송인, 상담원 등)
- ✓ 기관지가 좋지 않으신 분
- ✓ 호흡이 불편하거나 기력이 없으신 분
- ✓ 먼지로 인하여 목이 자주 아프신 분
- ✓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
- ✓ 오래 동안 감기로 기침을 자주하시는 분
- ✓ 목에 가래가 달라 붙어 있어 기침이 잦으신 분

김만수 시장, 부천 곳곳 ‘현장 대화’ 보폭 넓혀

작년 11월부터… 격식없는 대화 ‘시정에 반영’



△김만수 시장이 2일 오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찾아 센터 관계자 및 청소년들과 현장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만수 시장이 부천 곳곳을 찾아 ‘현장 대화’의 보폭을 넓혀가며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시장은 ‘시민이 시장입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같은해 11월부터 ‘시장과의 현장 대화’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 시장의 ‘현장 대화’는 평소 대화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약, 격식, 서류없이 현장의 소리를 듣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김 시장은 시장으로 당선된 지 1년째 되는 날인 2일 오후에는 부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가솔 여성·청소년보호시설인 모퉁이쉼터 등 청소년시설 3곳을 차례로 방문,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시

설 종사자들과 현장 대화를 갖고 부천시의 청소년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시장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해 청소년 자살문제에 대한 센터의 자살 예방 지도방법과 학생들의 반응, 향후 계획 등을 듣고 “학교 교육과 연계해 많은 학생들이 자살 예방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시장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분소 설치에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청소년상담센터의 협소한 공간을 감안해 오정구와 소사구에 분소 설치를 계획 중이며, 단기적으로 동반자사업(찾아가는 상담서비스)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김현경 부장은 “부천시장이 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며 “상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위기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 상황과 특성화, 통합성, 파트너십 등에 관한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학교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수련관에서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올해부터 실시한 예술교육특화지구 추진을 통해 부천지역 학생들이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지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가솔 여성·청소년보호시설 ‘모퉁이쉼터’를 찾아 가솔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가정 복귀 실태와 진로·직업상담을 통한 사회 적응 사례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 시장은 모퉁이쉼터 김정희 소장으로부터 가솔 청소년들이 잠시 들러 쉴 수 있는 일시보호쉼터(드림인센터) 설치에 건의받고 “노숙인 쉼터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가솔 청소년들이 배회하는 장소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은 미래 세대와의 현장 대화도 빼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12일에는 부천대학생들과 현장 대화를 가졌고, 같은해 12월3일에는 원미고 학생들과 현장 대화를 가진 데 이어, 올해 3월11일에는 중앙초등학교, 4월8일 고리울초등학교, 5월9일 서울신학대학교 등을 방문해 무상급식과 청년 실업 등에 관해 학생들과 현장 대화를 가진 바 있다.

부천시 · 인천 부평구, 공동발전 협약 체결

시설 인프라 공동 사용 · 상호 협력키로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는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두 지자체는 지난 5월30일 오후 5시30분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컨벤션센터에서 김만수 부천시장과 홍미영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국·소·단장, 실무부장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부천시와 부평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교통 발달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문제 해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도시가 보유한 각종 시설과 인적 자원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체육·환경·청소년·교통·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



△김만수 부천시장과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5월30일 오후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컨벤션센터에서 공동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두 지자체는 인접구역(행정구역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과 생활 환경에 따른 상호 시설을 공동

으로 이용하고 지역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제조업·첨단산업·유통서비스업 등 상호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개통

과 관련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 방안도 강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진행시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부천시와 부평구는 이날 공동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오정동 옛 미군기지 ‘캠프 머서’와 부평구 옛 미군기지 ‘캠프마켓’의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부천시는 앞서 지난 11일 시흥시와도 공동발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근 자치단체와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협력하고 각자 보유한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서부수도권 지역의 중심도시로 발전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일제조사

복지 소외계층 발굴 · 보호 위해 6월15일까지 실시… 추진단 구성

부천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발굴, 보호하기 위해 6월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는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소외된 우리 이웃’이라는 주제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정몽배 부시장을 단장으로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직권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통·반장 및 시민 신고에 의한 조사를 병행하며, 필요시에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도 실시한다. 시는 특히 주거 취약 및 무주택 가능지역인 창고, 움막, 컨테이너, 공용화장실, 놀이터, 철거 예정지역, 교각 인근 등지와 고시원·PC방에 아동을 동반한 장기 투숙자 등을 중점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에 따른 시민 신고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9), 시청 주민생활지원과(032-625-8421~3),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및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무한돌봄사업 및 민간복지지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근로사업 제3단계 참여자, 8일까지 접수

정보화 등 4개 분야에 350명…7월5일~9월23일

부천시는 올해 3단계 공공근로사업(7월5일~9월23일) 참가자를 6월8일까지 접수받는다.

추진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정보화·생산성·공공서비스·환경정화사업 등 4개 분야로 모집인원은 350명이다. 특히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8세 이상~28세 이하 청년층 실업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30%가 청년층 대상사업에 우선 사용된다.

신청자는 신분증, 의료보험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와 구직 등록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방송통신 대학생 및 야간 대학 재학생 또는 대학 휴학생 △0.1ha 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 △6개월 이상의 무급 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이다.

단, 실업급여 수급권자·1세대 2인 이상 신청자·재학생(대학원

생 포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정기적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근로 일급은 3만5천원이며, 공통적으로 1일 3천원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간식비 등의 부대경비가 지급되고, 특히 3단계 사업부터는 65세 이상자는 일일 4시간 근무로 일급 1만7천500원, 부대경비 3천원이 지급된다.

일자리정책과 공공일자리팀 ☎(032)625-2860

‘공감부천 시민운영단’ 모집

부천시는 바쁜 일상생활로 시정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시정에 참여해 ‘공감부천 시민운영단’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정에 관심 있는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 접속해 ‘공감부천 시민운영

단’ 모집 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공감부천 시민운영단’은 온라인상에서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제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평가하는 시민평가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활동사항에 따라 홈페이지 마이리치 보상 차원에서 소정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032)625-2381.

‘전통시장 상점’ 고유 명칭 공모

부천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부천시 전통시장 상점’ 고유 명칭을 오는 6월15일까지 공모한다. ‘전통시장’ 고유명칭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 시골벽적이고 흥미롭고, 재미있고, 볼거리가 풍부한 부천시민의 전통시장을 상징할 수 있도록 한글 5자 이

내로 담아내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 및 공무원은 이메일(naho99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결과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에게는 하반기 시청 월례조회시 시상하며, 수상작은 부천시에서 전통시장 명칭으로 공식 사용하게 된다. ☎(032)625-2701.

37개 동주민센터에 전문 직업상담사 배치

6월부터 취업상담창구 확대 운영

부천시는 6월부터 3개 구청과 37개 동(洞)주민센터에 시청 일자리센터와 동일하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하는 ‘취업 상담 창구’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당초 내년도 모든 동 주민센터에 전문 직업상담사를 확대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4월 18일부터 삼곡3동, 역곡1동, 상3동, 소사본3동, 역곡3동, 송내2동, 성곡동, 고강본동, 신흥동 등

9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취업지원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데다, 나머지 동주민센터 주민들도 전문 직업상담사 배치를 희망해 실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구인·구직 알선 등 취업연계와 청년·노인·여성·취약계층별 취업지원을 맡는 전문 직업상담사를 37개 동 주민센터에 확대 배치함에 따라 시청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동주

민센터의 취업 상담 창구에서 양질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 관계자는 “관내 37개 동주민센터 취업창구의 확대 운영으로 시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성과가 좋을 경우 내년도도 지속적인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032)625-8431

부천시, ‘1사·1하천 운동’ 협약 체결

동부하이텍·페어차일드·GS파워 지정 하천… 지속적으로 책임관리



△김만수 부천시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30일 오전 시청 만남실에서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 정영수 공장장, ㈜동부하이텍 부천공장 서광화 공장장(왼쪽부터), GS파워(주) 부천열병합발전처 최동욱 발전처장(맨 오른쪽)과 ‘1사(社)·1하천(河川) 운동’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천시는 공해배출업소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책임성과 상호 협력을 위해 30일 오전 시청 5층 만남실에서 관내 3개 기업과 ‘1사(社)·1하

천(河川) 운동’ 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협약을 체결한 3개 기업체는 ㈜동부하이텍 부천공장, GS파워(주) 부천열병합발전처, 페어차일드코리

아반도체(주)로, 이들 기업은 환경부에서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이다.

시가 추진하는 ‘1사·1하천 운동’은 공해배출업소 중 환경보전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의사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1사·1하천 운동’을 위한 하천을 지정해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책임관리로 주변 환경 개선 및 친환경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이에 앞서 ㈜동부하이텍 부천공장은 지난 4월26일 여월동 베르네천에서 하천 쓰레기 약 2.5톤을 수거하고 하천에 유충미생물(FM)을 투입하는 등 하천 정화활동을 펼친 바 있다.

시 환경보전과 산업공해팀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1사·1하천 운동’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기업체·환경단체·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환경보전 활동으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고, 관내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32)625-3161.

◆원미·소사·오정구청장기 축구대회 성황리 개최

제12회 원미구청장기, 원미축구회 우승

지난 5월15일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에 폐막된 제12회 원미구청장기 축구대회에서 원미축구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원미축구회는 이날 계남축구회와 결승전에서 2-2로 연장전까지 가는 팽팽한 접전을 벌였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계남축구회는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고, 공동 3위는 북부축구회와 은화축

구회가 차지했다. 대회 MVP인 최우수선수상은 원미축구회 김덕희 선수에게 돌아갔고, 득점상은 은화축구회 김홍수 선수, 감독상은 원미축구회의 유재전 감독이 수상했다. 이해양 구청장은 폐회식에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축구동호회원들이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성숙한 스포츠맨십을 발휘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부족한 점을 보완해 축구동호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는 알찬 대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12회 원미구청장기 축구대회는 22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8일 개막돼 토너먼트 방식으로 예선전을 치뤘 8강전과 4강전, 결승전까지 치르는 동안 승부를 점칠 수 없는 팽팽한 명승부가 펼쳐졌다.

제12회 소사구청장기, 남중FC 우승

지난 5월22일 폐막된 제12회 소사구청장기 축구동호인 축구대회에서 남중FC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17개팀이 참가해 지난 5월15일 부천시민회관 옆 시민운동장에서 터너먼트 방식으로 예선전과 8강전을 치뤘 남중FC, 범박축구회, 휘닉스축구회, ON2축구회가 4강에 진출, 22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4강전에서 남중FC와 휘닉스축구회가

결승에 진출해 남중FC가 3-0으로 휘닉스축구회를 물리쳤다.

대회 MVP(최우수선수)는 남중FC 오영주 선수에게 돌아갔고, 최다 득점상은 4골을 넣은 범박축구회 이상훈 선수가 차지했다. 이상훈 선수는 우스판스런 시상 세레머니로 큰 웃음을 웃기도 했다.

이날 결승전에 앞서 번의 경기로 열린 70대 어르신 축구동호회 경기에서는 젊은 축구동호인들

못지않은 뛰어난 실력과 활기 왕성한 체력으로 노익장을 과시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박상설 구청장은 폐막식에서 “참가 선수들 모두가 페어플레이로 스포츠맨을 발휘해 별다른 잡음없이 소통과 화합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 소사구에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한 모두가 승리”라고 격려했다.

제13회 오정구청장기 축구대회, 신기축구회 2연패

올해 4회째 유소년부는 원종초등학교 우승

5월29일 폐막된 ‘제13회 오정구청장기 축구대회’에서 신기축구회가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차지했다. 신기축구회는 주주축구회와 결승전에서 전후반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연장전에 2골을 넣어 3-1로 물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23개 축구동호인팀이 참가했으며, 최우수선수는 신기축구회 임원수 선수가 차지했다.

또 6개팀이 출전한 제4회 오정구청장배 유소년 축구대회에서는 오정구가 지원하는 유소년축구교실팀인 원종초등학교가 대명초등학교 결승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벌이며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최우수선수는 원종초 김진욱 선수가 차지했다.

박명호 오정구청장은 폐회사에서 “참가팀 선수 모두가 페어플레이어 정신으로 유감없이 기량을 발휘하며 축구 동호인간 친목과 화합의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축구 동호회원들과 유소년 학생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알찬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민과 정직한 소통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

‘한국만화 생태계, 디지털만화 진화 모색한다’

‘디지털만화 유통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설명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서 오는 9일 오후 2시 열려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자리잡고 있는 국내 대표적 만화진흥기관인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이현세)은 오는 9일 오후 2시 한국문화박물관 1층에서 ‘디지털만화 유통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디지털만화 유통지원 플랫폼 사업’은 미디어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만화 출판사업을 디지털을 중심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부천시가 총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디지털만화의 생산을 지원하고, 유통의 중심 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3개 분야 9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측은 설명이다.

▲신기술 교육 지원부문= 현역 만화가 1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콘텐츠 제작 기술교육을 시행, 경연과 멘토 개념을 도입해서 최종 10명의 작가를 선발해 특정 분야의 전문 멘토와 함께 작품당 3천만원 내외의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받게 된다.

▲디지털만화 사업화 지원 부문= 만화콘텐츠를 어떠한 매체로도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퍼블리싱시스템 구축과 신규 유통 모델 개발 공모사업 등을 진행한다.

기존 디지털만화 유통 방식과 다른 아이디어를 제출한 작가와 기업을 선정해 6천만원 내외의 모델 개발비를 지원하고, 디지털만화 분야

의 세계적 석학과 선도 기업의 관계자를 중심으로 기술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외 공정 유통 부문= 만화가의 1인 창조기업화 지원과 만화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직접 판매 지원 등을 위해 ‘디지털만화 유통위원회’를 발족해 연구·조사·홍보 사업 등을 수행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김병현 원장은 “만화가, 만화콘텐츠, 만화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만화 유통지원 플랫폼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만화계의 창작 역량 강화, 창의 콘텐츠 활성화, 글로벌 기업 경쟁력강화라는 3대 전략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디지털만화 유통지원 플랫폼 사업’ 설명회와 관련한 문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www.komacn.kr) 또는 콘텐츠비즈니스팀(☎032-310-3071)으로 하면 된다.

활기찬 인생 2막 ‘시니어 창업스쿨’ 신청자 모집 6월7~21일 매주 화·목요일 복사골문화센터

부천시 출연기관인 (재)부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혜준)은 한국소호진흥협회와 협력해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시니어 창업 스쿨’ 교육 과정을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복사골문화센터에서 기초과정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 시니어를 대상으로 퇴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제2의 인생을 위한 사회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개강 전까지 중소기업청 시니어넷(www.seniorok.kr)을 통해 참가 신청을 접수받으며, 교육비는 6만1천300원으로 수료생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기초 과정에는 창업 소양교육과 역량검사를 비롯해 커뮤니케이션 전략, 서비스 트렌드와 창업사례 분석, 사업 모델 발굴 등이 진행되며, 기초과정 이후 심화 과정 및 실천 과정이

있으며, 교육비는 별도이다.

한편, 이번 기초 과정은 전문가로 구성되고 중소기업청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코치들의 지도로 소그룹 형태로 실무지식을 전수하고, 수료자를 대상으로 창업 및 취업에 대한 컨설팅과 멘토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기타 문의는 부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032-320-6331)과 한국소호진흥협회(☎070-8679-2196)로 하면 된다.

승부 조작과 관련, 부천FC 선수단 선언문 채택

“결코 부정한 행위 관련한 일 없다” 밝히고 “승부조작 가담은 영혼을 파는 행위로 간주 진실된 친구만 보여주겠다” 홈팬들에 약속

K리그와 내셔널리그에 이어 국내 축구 3부 리그격인 ‘챌린저스 리그’에 속한 ‘부천FC 1995’ 선수단은 1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국내 축구리그에서 밝혀지고 있는 승부조작과 관련, 4일 오후 7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포천시민구단과의 홈경기에서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www.bfc1995.com)

부천FC 선수단은 “다른 팀 다른 선수의 잘못된 판단에서 벌어진 일

만을 보여줄 것을 약속하고 ▲달콤한 말로 접근하는 모든 브로커들에게 대해 즉각적인 신고 조치를 통해 구단 선수들에게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승부조작은 관중과 팬들에게 거짓의 축구를 보여주고, 크게는 팀과 대한민국 축구를 망하게 하는 행위로, 만일 구단 선수단에서 가담 선수가 발견되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으며 ▲이 땅의 축구리그 현장에 스며든, 악마의 장난 승부 조작, 도박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구단과 선수들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부천FC 구단은 축구팬들에게 “부천FC1995는 아름다운 축구단을 지



BUCHEON FC 1995

향하는 구단 소속의 선수로서 어떠한 부정 행위도 관여할 수 없다”며 “경기장에서 신뢰가 기본이 되는 진실된 플레이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천종합운동장 대형 전광판에 사랑을 고백하세요”

부천FC, 전광판 활용 ‘러브존’ 이벤트 상품 출시

부천FC 1995가 앞으로 부천종합운동장 홈경기 때마다 축구팬들은 대형 전광판을 통해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거나,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동영상 보여주는 동영상을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천FC는 “부천FC 홈경기시 전광판을 활용한 ‘러브존(Love Zone)’ 밴드 상품을 출시한다”고 지난 5월27일 밝혔다.

‘러브존 이벤트’는 부천FC의 홈경기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경기장 내 대형 전광판에 원하는 영상을 상영하는 것으로, 연인들의 프로포즈를 비롯해 각종 기념일 축하, 기업이나 단체 소개 등 다양한 장르를 전광판에 상영할 수 있다. 단, 지나친 광고성 영상을 제외된다. 전광판을 통해 영상을 상영하고 싶은 팬은 전광판 대어 및 동영상 제작을 위한 최소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럽존1, 럽존2, 럽존3 등 3가지 프로그램 중 럽존1은 구단 측에서 포토 영상을 제작하고 상영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럽존2는 신청자가 제작한 포토 영상을 전광판에 상영해주며, 럽존3은 전광판에 25자 내외로 자막을 틀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럽존1과 럽존2는 상영시간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다. 1분30초, 2분30초, 3분30초 동안 영상을 상영할 때 럽존1은 각 3만원, 5만원, 7만

원, 럽존2는 각 2만원, 4만원, 6만원의 비용이 든다. 럽존3은 1회당 5천원의 비용이 드는 자막으로 여러 번 상영 가능하다.

모기업 없이 자체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시민구단인 부천FC는 수익 다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러브존 이벤트’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선보인 것으로, 부천FC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모션 상품을 출시해 구단 운영에 보탬 예정이다.

‘러브존 이벤트’ 신청 및 기타 문의 사항은 부천FC 구단으로 전화(☎032-655-1995) 또는 이메일(xlionking@hanmail.net)을 통해 하면 된다.

/부천시민과 정직한 소통 -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

‘소새울 사랑봉사단’ 6년째 반찬방·빨래방 운영

매월 2회 독거노인과 장애인에 밀반찬 전달 매주 빨래 수거 세탁 봉사… “희망의 흙씨”



△박상철 소사구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5월27일 ‘소새울 사랑봉사단’이 운영하는 반찬방을 찾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한 밀반찬을 포장하고 있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주민센터(동장 이승표)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든든한 이웃들이 있다.

자원봉사에 뜻있는 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지난 2005년 발족된 순수 봉사단체인 ‘소새울 사랑봉사단’ (회장 김영규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6년째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40여명의 회원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의 가정에 매달 2회씩 정성껏 만든 밀반찬을 배달하는 ‘반찬방’과 매주 빨래를 수거해 깨끗이 세탁해 전달하는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5월27일에도 ‘반찬방’이 열려 회원들이 아침부터 순수 마련한 갖가지 재료로 3가지 밀반찬을 만들

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등 30세대에 쌀 10kg들이 1포대와 함께 전달했다.

박상철 소사구청장도 이날 ‘반찬방’을 찾아 ‘소새울 봉사단’ 회원들을 격려하고 반찬 포장과 함께 직접 배달에 나섰다.

박 구청장은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사람들의 인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들의 사랑이 ‘희망의 흙씨’로 퍼져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지역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새울 봉사단 관련 문의 ☎(032)625-6682

/부천시민과 정직한 소통 -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

부천문화재단, 공연콘텐츠 아이디어 공모 완료

독창적 공연 발굴 위해… 6월22일까지 접수 접수된 아이디어 중 4개 선정 300만원 수여

부천시 출연기관인 (재)부천문화재단(이사장 김만수 시장·대표이사 김혜준)은 ‘문화도시 부천’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22일까지 독창적인 공연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공연콘텐츠 개발을 통해 부천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공연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지정 과제와 자유 과제로 나눠 접수받는다. 자유 과제는 장르·규모·장소 등 제한이 없으며, 지정 과제는 어린이를 위한 소극장(판타지극장, 200석 규모)에서 진행 가능한 공연 콘텐츠 아이디어만 접수받는다.

접수된 아이디어 가운데 자유과제(공연 나무상 100만원,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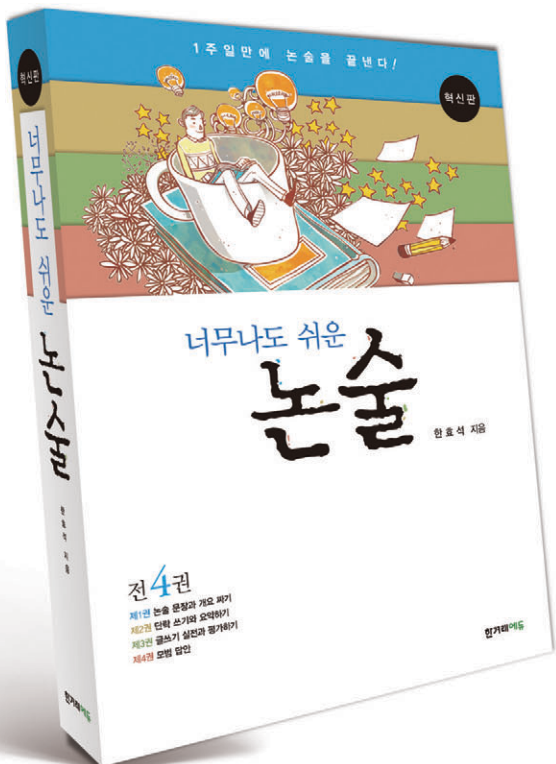
씨앗상 50만원)과 지정 과제(공연 나무상 100만원, 공연 씨앗상 50만원) 등 4개 아이디어를 선정해 총 300만원의 수여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제작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접수 방법은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bcf.or.kr)에서 신청서와 자유형식의 제안서 및 제안 아이디어 요약본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032)320-6334.

이메일접수 bcfgonggam@gmail.com

한겨레에듀 www.hanibook.co.kr 02-6383-1602~3 *한겨레에듀는 한겨레출판(주)의 교육출판 브랜드입니다

논술, 1주일이면 된다!



논술 준비,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요?

논술 시험은 몇몇 기준을 제시하여 그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지, 백일장에서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즉, 그3 수험생이 공교육에서 제대로 배운 뒤, 논술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겨 쓰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글썽싸를 타고나지 않아도 기준에 맞추어 익히면 해결할 수 있지요.

- <머리말>에서

정말 1주일이면 논술을 끝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논술 지침서와는 달리 글쓰기 단계를 매우 상세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쓰기에 전혀 자신 없는 중고등학생은 물론 학부모, 입사 시험 준비생, 글쓰기 지도교사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글쓰기에 자신감이 붙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범 답안 1권을 포함, 총4권 1세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 책 3권을 각각 이틀에 한 권씩 떼어 나간다면 6일만 해도 논술에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논술 핵심판(전4권)
제1권 논술 문장과 개요 짜기 | 제2권 단락 쓰기와 요약하기 | 제3권 글쓰기 실천과 평가하기 | 제4권 모범 답안
한울식 지음 | 총 648쪽 | 25,000원

주제로 익히고
유형으로 다지는
실전 논술의 길잡이



핵심 주제, 교과서 개념, 관련 자료, 예상 논제로 이어지는 시스템 학습!

통합논술 교과서

- 1 실과 철학
- 2 사회와 문화
- 3 경제와 과학

전통식 · 김수연 · 김창석 공저
각 권 18,000원



실제 논술 시험의
모든 유형과
해결 방안이 한 권에!

25가지 문제 유형으로 보는
유형별 논술 교과서

전통식 · 김수연 · 김창석 공저
22,000원

◆오정동 옛 미군기지 ‘화학물질 매립’ 의혹

47年前 무슨 일이?... 토양·지하수 오염 여부 ‘촉각’

부천시 TF팀 구성... 주민설명회 등 불안감 해소 주력
시민단체·정치권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상 회복” 촉구



△국방부와 육군, 환경부, 부천시 등은 화학물질 매립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오정동 옛 미군부대 ‘캠프 머서’를 방문,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김만수 부천시장과 김상희 국회의원(민주당), 부천시 TF팀장 김홍배 도시환경국장, 박명호 오정구청장 등도 참석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종합〉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KPPO-TV는 지난달 16일(현지시간)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근무한 적이 있는 제대 군인 인터뷰를 통해 33년전인 1978년 어느날 베트남 전쟁에서 고엽제로 쓰인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 55갤런 짜리 드럼통 250개를 기지 안에 묻었다고 증언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옛 미군기지 ‘캠프 머서’의 미군 44공병대대 547중대원으로 1963년 7월부터 1964년 4월까지 근무한 레이 보우스(Ray Bows, 당시 계급 일병) 씨가 지난 2004년 5월24일에 6.25 참전용사의 아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코리아 워 프로젝트(Korean War Project)’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캠프 머서에 주한미군 화학물질 저장소(USACDK·US Army Chemical Depot Korea)가 있었고, 1964년 3월 또는 4월께 이 화학물질 저장소를 경북 칠곡군 왜관의 캠프 캐럴로 옮기면서 캠프 머서에서 불도저로 구덩이를 파고 고무로 만든 옷과 가스 마스크 및 상상할 수 있는 온갖 화학물질 쓰레기를 수백 갤런(1갤런은 3.8L) 버렸다”고 밝힌 사실이 같은달 24일 국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천속의 미국’이라는 47년 전 타임머신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보우스 씨는 구체적인 매립 장소에 대해 “캠프 기지 정문에서 오른쪽 두번째 창고 뒤에 있는 언덕”이라고 지목했으나, 어떤 화학물질이었는지, 이후 어떻게 관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캠프 머서에 있는 주한미군 화학물질 저장소는 이곳(부천)이 비무장지대이고 가깝다는 이유로 1964년 3~4월경 ‘캠프 캐럴’(경북 칠곡군 왜관읍)로 이전했다”며 “1978년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캠프 머서는 1964년 당시와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회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지역사회에서는 인근지역 환경오염 등에 따른 우려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편집자 주>

■ ‘캠프 머서’... 오정동서 38년간 주둔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17번지 일원 33만1천803㎡ 규모에 ‘캠프 머서’라는 이름으로 미 44공병대대가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1954년 7월부터이고, 1992년 9월30일 파주 봉일천 일대로 이전할 때까지 38년간 주둔했으며, 1993년 7월 우리 측에 반환됐고 현재는 육군 수도군단 1121공병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부대 내에는 건물 61개 동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부천시, TF팀 구성 신속한 대책 나서

부천시는 오정동 옛 미군기지의 화학물질 매립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5월24일 오후 “군부대의 실태 파악 후 매립 여부 확인 및 토양오염 조사 과정에 공동 참여 의견을 군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오염 여부가 공식 확인될 경우 중앙부처(환경부, 국방부 등)와 유기적인 관계로 토양오염 원상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첫 공식 입장을 냈다.

시는 이날 김홍배 도시환경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부천시 오정동 미군기지 화학물질 매립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화학물질 조사 추진, 오염 여부 조사,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신속한 대책에 나섰다.

시는 이어, 다음날인 25일 오전 9시 김만수 시장 주재로 정용배 부시장, 김홍배 도시환경국장, 고영태 물재생과장(옛 하수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송재용 참여소통과장, 박한권 홍보기획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관계기관 공동대응 방안 및 우선 조치할 내용 등을 논의하고 △국방부, 경기도 등 관련 기관 공동 대응 추진 △인근지역 오염여부 조사 실시 △인근지역 주민 대상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만수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20분에는 오정동 옛 미군기지 현장을 방문해 김상희 국회의원(민주당 소사구 지역위원장)과 1121 부대장, 국방부 환경과장, 수도군단 정훈참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화학물질 매립 현장 공동 조사 등을 협의하는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어, 김만수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근지역 수질오염 검사와 관련해 “군부대 내부는 국방부 주관 하에 오염 여부를 검사와, 군부대 주변 인근 지하수 오염 여부는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리공 37곳에 대해 수질오염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화학물질 매립 여부 확인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주관하에 경기도, 부천시 등 관련기관과 부천지역 민간환경단체가 참여해 매립 여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어, 이날 오후 오정동 주민센터에서 오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부천시 대처 방안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한편, 김만수 시장은 이번 오정동 옛 미군기지의 화학물질 매립과 관련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방문할 예정이었던 해외 자매도시인 러시아 하바로프스키시 건립 153주년 기념행사 참석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한편 부천시 물재생과는 5월30일 오후 2시 오정동 553의 2번지와 593의 4번지 등 군부대 부근 지하수 2곳 관정에서 직원 3명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명의 연구원이 입회한 가운데 각 40ℓ씩을 채수했다.

채수된 지하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이옥신,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CE) 등의 항목에 걸친 오염 여부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시는 또 나머지 7곳의 지하수 관정에 대한 채수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 실시할 예정이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지하수 오염도 검사 결과는 약 한달(3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만수 시장은 이날 지하수 채수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주민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군부대 인근 지역 오정동과 원종2동 주민들을 차례로 만나 현장 대화를 가졌다.

김 시장은 주민들과의 현장 대화에서 화학물질 매립 의혹과 관련한 상황과 시의 조치 사항 및 향후 대처방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군부대 주변에 오래 거주한 오정동 주민들은 “군부대 인근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와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해 줄 것”을 부천시에 요구하고, “오정동 주민들 가운데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타 구에 비해 많이 역학조사와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밝혀 “화학물질 매립”에 대한 주민 건강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또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토질조사 대상지를 군부대(현 수도군단 1121 공병부대) 뿐만 아니라 오정동 주변 일대도 포함해 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투명한 진상조사를 위해 주민들이 참여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추진과정과 조사 결과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김 시장은 “앞으로 화학물질 매립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과 군부대 인근지역 토양 및 수질오염 검사 실시 및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사태 수습을 위한 신속한 대처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상회복” 촉구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부천시위원회, 부천민중연대 등은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내고 “민·관·군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와 개혁실천 부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주민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부천

시에서도 빠르게 민관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오정동 미군기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밀 환경조사와 주민 건강조사를 진행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부천시위원회도 “부천시와 정부는 오정동 미군기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주한미군은 전국의 모든 미군 기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응하고 매립에 관련된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오염된 땅 원상복구할 것과 미국은 고엽제 매립 범죄행위를 자행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천지역 4개 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경북 칠곡에 준하는 한미협조와 민간군 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부천지역의 또다른 반환 미군기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에 관한 부속서 체결 이전인, 2003년 이전에 반환받은 10개의 미군기지를 포함한 47개의 모든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조사 및 4천억이 넘어갈 것이라는 반환기지 환경오염 복구비용에 대한 미군 측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이러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불평등한 SOFA 환경규정의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부천민중연대도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해 조사단을 구성하고 과학적이고 빈틈없는 진상조사,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를 진행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협정을 즉각 개정하고, 사실 확인시 주한미군은 완전한 원상복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참여와 개혁실천 부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도 “신속한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시민대표가 포함된 민·관·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착수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오정동 주민을 중심으로 범시민적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47년 전 다량의 화학물질 매립이 된 곳으로 추정되는 오정동 옛 미군기지 ‘캠프 머서’ 정문 내 오른쪽 언덕.

■ 민간군 공동조사단 구성, 현장조사 착수

국방부와 육군, 환경부 등은 지난달 25일 오전 10시부터 오정동 옛 미군기지 ‘캠프 머서’를 방문,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답사에는 국방부 환경팀 소속 2명과 육군 환경과 2명, 환경부 토양지하수와 2명, 한국농어촌공사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김만수 부천시장과 김상희 국회의원(민주당 소사구 지역위원장), 부천시 오정동 미군기지 화학물질 매립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 김홍배 도시환경국장, 박명호 오정구청장 등 시관계자도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정동 옛 미군기지 ‘캠프 머서’ 현장 방문을 통해 정확한 화학물질 매립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부대의 부지 이력 조사를 실시한 뒤 미군과의 협조하에 매립 장소를 정확히 추정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환경오염 조사는 미군을 비롯해 국방부, 환경부, 부천시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정동 옛 미군기지 ‘캠프 머서’내 화학물질 매립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민·관·군 공동조사단’은 13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 환경팀 2명(팀장 김미정 서기관과 강병석 중령), 육군 환경과 2명(과장 이용우 대령과 조석희 중령), 1121공병부대장 김용석 대령 등 군 관계자 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로는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이상훈 교수·서울대 농생명과학 공동기기원(NICEM) 이관택 교수·(사)한국위해성예방협회 부설 환경위해성 평가연구소장 양임석 박사 등 3명, 부천시에서 이봉호 부천시 환경보전과장, 시의회에서 신석철 건설교통위원장, 주민대표로 최병철 오정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서영석 전 부천시 약사회장(전 3선 부천시의원 등 2명, 환경단체에선 김낙경 푸른부천21 사무국장이 참여하고 있다.

화학물질 매립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캠프 머서’에 대한 현장

조사는 6월2일부터 시작돼 기초 조사와 개황 조사, 정밀조사 등 3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기초 조사에서는 오염 의혹 지역에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물리 조사를 실시하고(6월2~10일), 2단계에서는 매립 예상지점에 대한 굴착(21~22일)과 오염 의혹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개황조사(23일~7월8일)를 진행한다.

2단계 개황조사에서 오염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를 전제로 하는 3단계 정밀 조사(7월12일 이후)를 벌이게 된다. 특히 민간군 공동조사단의 조사는 7월11일과 12일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 오염물질이 기준치 초과시 정밀조사에 착수하고, 미초과시에는 조사를 종결기로 해 토양오염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정밀조사에 돌입하게 되면 6주간 소요되고 오는 8월말까지는 조사를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 태스크포스(TF)는 ‘캠프 머서’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인 뒤, 2003년 4월 이전 미군에게서 반환받은 85개 기지에 대한 환경조사 계획도 세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주관으로 경북 왜관 ‘캠프 캐럴’에서 진행중인 한미 공동조사단은 현재 주한 미군이 사용중인 기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국방부 태스크포스는 이와는 별도로 이미 반환 받은 기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오정동·원종동 주민 72.4% “화학물질 매립됐을 것”

75.3% “부대 전지역과 주변지역 광범위한 조사 필요”
88.8% “군부대 이전”... 62.2% “주민편의 기반시설”

부천시 오정동 옛 미군부대 ‘캠프 머서’에 47년 전인 1963년 3~4월경 “온갖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당시 근무한 주한미군 퇴역 군인의 증언이 5월24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13명으로 구성된 민·관·군 공동조사단이 5월31일 첫 ‘현장 조사’를 위한 1차 회의를 갖고 2일부터 ‘화학물질 매립 지점’을 찾기 위한 기초 조사가 실시된 가운데, 군부대 인근 오정동과 원종2동 주민들 대다수가 “화학물질이 매립됐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부대 전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 및 수맥 등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대 주민들은 또 미군부대가 이전한 뒤 주둔 중인 현 육군 수도군단 1121공병부대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군부대를 이전해야 하고 도로·공원·종합병원 등 주민편의 기반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주민 의견은 한나라당 부천오정당원협의회(위원장 안병도)가 지난 5월30일 여론조사 전문가인 ㈜우리리서치에서 의뢰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자동전화 여론조사(ARS) 방식에 의해 오정동 군부대 인근 오정동과 원종2동 주민 708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매립 사건 인지도와 대응 방안,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주민 의견 및 군부대 부지 활용방안’ 등에 관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주민 72.4%(513명)는 “화학물질이 매립됐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이들 주민 89.0%가 “악영향을 우려한다”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 75.3%가 “부대 전지역과 주변지역의 토양·수맥 등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16.4%는 “군부대 내부구역에 대한 토양·수질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군부대 이전문제와 관련, 주민 88.8%는 “부대 이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62.2%의 주민이 “도로·공원·종합병원 등 주민 편의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 논의했던 ‘군부대 종합병원’(5.6%), ‘대학 유치’(12.6%), ‘소규모 신도시 유치’(13.0%) 등의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한나라당 부천오정당원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전화가 연결된 4천208세대 중 22.4%인 943세대가 응답했고, 끝까지 응답한 708세대의 표본을 분석한 것으로 95% 신뢰구간에 표본오차범위는 ±3.6%이다.

/부천의 참언론 - 더부천 www.thebucheon.com

25년 노하우!

100% 수제 맞춤 양복!

부천성모병원(구 성가병원) 사거리 위치

을지라사 ☎ 032-346-1040

더부천 www.thebucheon.com

더부천 후원 계좌

국민은행 606001-01-350994

우리은행 1002-837-947433

디자인이 소리납니다

· 카디로그 제작 · 신문צי지광고 · 건설비용광고 · 전단지제작 · C.I.P · POP

종합광고회사

주) 지멘커뮤니케이션

02) 516-4505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17 104

풍계가든

황토진흙구이, 옷담, 닭도리탕, 닭백숙, 오리백숙, 영양탕, 오리숯불고기

부천시 원미구 송의동 산66번지

T.032)681-2211 ~ 2

공증인가법무법인 오아시스

대표변호사 조영상

소송 ☎032-325-3115

공증 ☎032-321-6611

A legal information center

lawyercho.co.kr

www.leejaeok.co.kr

내집처럼 편안한 세무상담!

이재옥 세무회계사무소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62번지 뉴월드프라자 4층

T.032)328-5300



◆부천 상동 워터파크 '웅진 플레이도시'에 가면...

2m 높이 파도풀... 실제 바다와 같은 스릴감 넘쳐

7가지 다양각색 스릴감과 짜릿한 '워터 슬라이드'

겨울스포츠 365일 즐기는 국내 유일 실내스키장



△웅진플레이도시 전속모델 가수 나인뮤지스 이유애린, 이샘, 현아(왼쪽부터)



△가장 인기를 끄는 워터 슬라이드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디로 놀러 갈까'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여름철 가장 인기가 높은 워터파크의 경우 강원도와 충청도 등 먼거리에 위치해 있어 워터파크 이용료 이외의 기름값과 숙박비 등 비용 부담이 만만찮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바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위치한 '웅진 플레이도시'이다.

주중, 주말 부담없이 가족, 연인과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 1호선 부개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이고, 승용차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를 이용하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웅진플레이도시는 '도심형 실내 테마파크'이다.

국내 최대 실내 워터파크&스파 '워터 도시', 국내 최초 유일의 사계절스키장 '스노우 도시', 국내 최장거리(360야드)를 자랑하는 실내 골프연습장 '골프 도시', 어린이들의 놀이체험 학습센터 '키즈 도시', 스포츠 워크숍 전문시설 '신기 도시'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웅진플레이도시 워터도시는 전체 약 1만6천500㎡(약 5천평) 규모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로, 최대 2m의 파도를 즐길 수 있는 대형 파도풀과 약 300m 길이의 유수풀, 총 7가지의 워터 슬라이드 등 야외 워터파크 못지 않은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얼룩말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컬러의 제브라 슬라이드는 12m 높이에서 떨어져 잠깐만 어두운 터널을 회전하여 통과해 기존의 오픈 슬라이드와는 다른 짜릿함과 스릴감을 최고조로 즐길 수 있는 웅진플레이도시의 가장 인기있는 슬라이드다.

또 2m 높이에서 초고속 스피드로 우주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바디슬라이드는 대형 스페이스 볼과 연계돼 원심력에 의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색다른 시설로 언제 물에 빠질 지 모르는 불안함과 스릴감을 느낄 수 있는 슬라이드로 사랑받고 있다.

스파존의 경우 워터파크 공간과 분리, 운영패스파 시설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유럽식 수(水)치료 시스템의 마사지 기능을 통해 온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대형 바데풀과 커플이 함께 오붓하게 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커플 풋 마사지존, 히노끼탕, 장미탕, 드라쿨라탕 등 다양한 아일럼 탕과 건식, 습식, 적외선 Dock이 준비돼 있다.

스파존의 가장 인기 장소인 '아쿠아바(bar)'는 물놀이를 즐기다가 출출할 때 수중에서 시원한 음료와 스낵을 즐길 수 있는 이색 장소로 젊은 연인 및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웅진플레이도시에는 또 한여름에도 스키, 보드와 같은 겨울 스포츠를 365일 즐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실내 스키장을 갖추고 있어 무더

운 여름에도 시원한 눈과 함께 이색적인 바캉스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먼저, '워터 도시'에서는 산타 아이스쇼가 펼쳐진다. 산타들이 화려한 타악 연주자로 변신해 한여름 워터파크 내부에서 눈과 얼음의 시원함과 다이아몬드 타악들의 화려한 캐롤송이 함께하는 이색적인 이벤트가 펼쳐진다.

'스노우 도시'에서는 산타를 컨셉으로 시원한 실내 스키장에서 산타수영복 스키, 보드 대회를 개최한다. 한여름 수영복을 입고 실내 스키장에서 펼쳐지는 이색 대회는 인기가 높다. 6월 웅진플레이도시를 방문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애쓰신 국가유공자, 군인, 경찰, 소방관 가족들을 위해 본인 포함 동반 1인까지 워터도시 입장료를 50% 할인해 준다. 또한 대학생들의 종강 시즌을 맞아 전국 모든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2명이 함께 오면 1명은 무료로 입장시켜 주는 이벤트는 6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 실시한다.

'워터 도시'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이용요금은 6월10일까지 대인 3만8천원, 소인 2만8천원이며, 6월11일~7월15일까지는 대인 4만3천원, 소인 3만3천원이다. 3개월 미만 유아는 증빙서류 지참시 무료 입장이다.

기타 문의 ☎1577-5773 홈페이지(www.playdoci.com)

PiFan 2011 '국민과 함께하는 영화제' 발돋움 예약

7월14일 개막식 MBC서 생중계... 부천 이미지 제고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Restart 15 PiFan' 슬로건
국내 영화제 최초로 '캠핑존' 운영... '한여름 영화축제'



△제1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PiFan 2011 · 7월14~24일) 공식 포스터.

화축제'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변화를 시도하는 올해 제1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Restart 15 PiFan'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관객과 더욱 가까워지는 영화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지난 2일 오전 시청 3층 소통마당(대회의실)에서 제1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PiFan2011 · 7월14~24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정지원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PiFan2011 행정지원보고회에는 조직위원장인 김만수 시장, 김영빈 집행위원장, 실·국장 및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날 보고회에서 PiFan 김영빈 집행위원장은 이같은 올해 영화제의 운영 구상을 밝혔다.

영화제 조직위원장인 김만수 부천시장은 "최근 오정동 옛 미군기지 화물물집 매립 의혹과 지난해

말 외곽순환로 하부공간 화재 등으로 실추된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제1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1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프리머스 소풍, CGV, 롯데시네마 등 관내 12개 공식 상영관에서 40여개국 220여편의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며, 오는 14일 오전 11시 원미구 상동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상영작품 및 프로그램, 부대행사, 영화제를 찾는 주요 게스트 등을 소개한다.

이날 PiFan 기자회견은 양정화 사무국장의 사회로 김영빈 집행위원장이 제15회 영화제의 전반적인 개요를 소개하고, 박진형·이영재 프로듀머가 올해 부천영화제에서 상영될 주요 상영작들을 소개하며, 남종석 전문위원이 아시아 판타스틱영화제작 네트워크(NAFF)를 소개한다.

*PiFan 공식 홈페이지(www.pifan.com)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부천영화제, 후원회원 연중 모집 개인·기업회원 10만원 이상

'제15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PiFan 2011)는 협찬사 및 후원회원을 연중 모집한다. 영화제 후원회원은 개인 및 기업 회원은 10만원 이상, 광고협찬사는 1천만원 이상이다.

후원 회원에게는 개·폐막작을 제외한 모든 상영작 관람이 가능한 영화 예매권 '프리미엄 초대권 10매'와 메인 카탈로그 및 기념품 증정, 티켓현장 구매시 프리미엄 초대권 전용 부스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 영수증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급하며 국세청 연말 정산 사이트에 연계된다. 개인 회원은 후원금 입금 다음해 1월에, 기업 회원은 8월 말에 발행된다.

특히 올해는 영화제 15주년을 맞아 선착순 150명의 후원회원에게는 PiFan 기념품을 증정하며, 15번째와 150번째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제15회 영화제 게스트 ID카드를 발급해 준다.

게스트 ID카드는 영화관계자 및 기자, 협찬

사 등의 게스트들에게 주어지는 ID카드로, 1일 4회 영화 관람, 게스트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며 게스트 패키지가 증정된다. 또 6월30일까지 가입한 회원 중 2년 연속 참여한 후원회원에게는 개막식 초대권(1인 2매)이 제공된다.

PiFan 후원회원 가입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pifan.com)나 후원회 사무국에 직접 방문 또는 후원회 신청서를 접수(FAX 032-714-3687) 또는 우편(420-030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번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센터 1층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원회 사무국) 접수한 뒤 후원회비 계좌입금(농협 301-0072-2825-51·예금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로 입금하면 된다. 후원회원 신청서는 PiFan 홈페이지에 접속해 '영화제 소개-후원회 소개-후원 가입 안내' 코너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기타 영화제 후원회원 가입 관련 문의는 후원회 사무국 ☎032-327-6313, 내선182으로 하면 된다.

도심 속 시골스런 분위기

안골보리밥



특선메뉴

보리밥 정식
얼큰이순두부
해물 파전, 동동주
얼큰추어전골
낙지닭도리탕
누룽지백숙
도토리묵
부침두부, 생두부



오시는 길 안내



예약문의 ☎ 032-674-4585